



자존과 영광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와 인간의 현실에 대하여

글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임금이 남한산성에 있다. 김류와 홍서봉이 강화를 청하다. 예조판서 김상헌이 화의의 부당함을 극언하다.”

〈조선왕조실록〉 중 〈인조실록〉의 일부분이다. 1636년의 겨울, 47일 동안 인조는 ‘남한산성에 있었다.’ 청의 대군이 언 강을 건너 서울로 진격해 오자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남한산성에 들었다. 임금은 ‘오랑캐’로 일컫던 청의 황제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고서야 비로소 도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른바 병자호란의 치욕이다.

소설가 김훈 씨가 최근 출간한 장편소설 《남한산성》에서 이 겨울의 47일을 담았다. 그의 전작 《칼의 노래》와 《현의 노래》 이후 세 번째 역사물이다. 갇힌 성 안에서 임금을 앞두고 벌어지는 주전파와 주화파의 논쟁과 나라의 전쟁 속에서 운명이 뒤틀리는 민중의 삶을 작가 특유의 직설적이고 빈틈없는 문체로 형상화했다.

《남한산성》이 출간된 다음날 저녁, 김훈 씨를 만나 새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특별히 ‘남한산성’이라는 소재를 가져오게 된 계기를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남한산성에 갔다가 설명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욕’과 관련한 것이었죠. 역사와 인간의 현실은 자존과 영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존과 영광만을 가지고는 역사의 온전한 모습이나 삶의 정당한 의미를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치욕’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소설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삶은 치욕을 견디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아름답다”고까지 표현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더 좋겠지만 더럽혀지는 것을 긍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인조라는 인물이 거대한 치욕을 감내함으로써 국가와 민족과 언어를 보존한 것은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책머리의 ‘하는 말’을 통해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소설의 엄혹한 행간을 흐르는 것은 ‘약소한 조국의 운명’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슬픔이다. 그의 문체는 감추면서 드러내고, 냉혹하게 연

민한다. 특유의 그런 절제가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완성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물이 ‘정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남한산성’과 관련한 온갖 기록에 파묻혀 있었다.

“‘남한산성’에 관련된 기록은 많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인조실록》이고, 47일 동안 성 안의 지식인들과 성 밖의 지식인들이 쓴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의 편차는 매우 큼니다. 편차가 크지만 기록 자체는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오히려 등장인물들이 절망을 대하는 여러 유형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오랜 세월 기자로 지낸 탓일까. 그는 어눌한 말투로 느리게 얘기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단어는 두, 세 번씩 정확하게 반복했다. 덕분에 ‘치욕’이란 단어를 인터뷰 내내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다.

“임금은 서문으로 나와서 삼전도에서 투항했습니다. 청 황제의 명으로 세운 삼전도의 비석은 그 치욕의 증거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일이 비록 치욕의 길이라 할지라도 땅 위로 뻗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상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늘 “말을 구사하는 자들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한탄한다. 작가로서 살아가는 일이 “청춘의 소망”은 아니었다는 말도 자주한다. 하지만 현실의 대상을 포착하여 발화하는 그의 언어는 마치 잘 베틀어진 칼로 이전에는 옛 본적 없던 것들의 속살을 드러내는 듯 독자들을 아찔하게 한다.

“작가는 결국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훨씬 거기에 미달하지만요.(웃음) 최근 한국 문학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문학은 대중문화의 기초를 이루는 장르이기에 위상이 작다고 해서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정말 문화의 토양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죠. 작가의 그런 고민과 성찰이 한국 문학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